

온탕욕에 의해 유발된 간부전을 동반한 열사병 1예

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장내과

김승영 · 고강지 · 김정엽 · 김명규 · 성수아 · 조상경 · 조원용 · 김형규

서 론 : 열사병은 체내 열의 축적으로 인해 다발성 기관 손상이 유발되는 것으로 내과적 응급질환에 속한다. 열 부하의 형태에 따라 고전적 열사병과 운동성 열사병으로 구분되며 고체온증, 망상, 경련, 혼수 등의 중추신경계 장애를 특징으로 하며 심한 경우 횡문근 용해증, 신장 및 간 기능장애, 범발성 혈관내 응고, 급성 호흡 부전, 장 허혈, 심근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. 저자 등은 온탕욕에 의해 발생한 간부전 및 뇌병증등 중증 합병증을 동반한 열사병 1예를 처음으로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증 례 : 환자는 68세 남자로 욕조 안에서 의식 소실 된 채로 발견되어 내원하였다. 환자는 7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경구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던 남자로 발견 당시 3시간 정도 온탕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. 내원 당시 의식은 반혼수 상태였고 혈압 80/50 mmHg, 맥박 분당 124회, 호흡수 분당 48회 체온 41℃를 보였다. 적극적인 냉각 요법과 수액 공급을 시행하여 활력 징후는 호전되었으나 의식 상태의 호전은 없었고 내원 2일째 혈액 및 생화학 검사상 입원시 148000/ μ l이던 혈소판 수치가 22000/ μ l으로, PT가 89% (INR 1.12)에서 13% (INR 7.57)로, aPTT가 26 sec에서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감소되고 AST/ALT가 98/97 IU/L에서 2136/1838로, total bilirubin은 0.7 mg/dl에서 3.2로 증가하면서 소변양의 감소를 보여 열사병에 병발된 간부전 및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으로 판단하고 지속적 정정맥 혈액여과법을 시행하면서 신선 동결혈장 투여와 영양 공급을 유지하였다. 치료 중 입원 3일째부터 AST/ALT는 감소되었고 PT도 40% (INR 2.0)정도로 유지되었으나 bilirubin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입원 20일째 total/direct bilirubin 48/32.5 mg/dl까지 증가되고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다. 입원 22일째 다시 bilirubin이 증가하고 PT 및 혈소판 수치의 감소를 보이면서 복부 팽만을 보여 시행한 복수천자에서 염증성 삼출액 소견을 보이고 혈액에서 Acinetobacter baumannii와 Enterococcus faecalis가 동정되어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입원 25일째 사망하였다.

결 론 : 과도한 온탕욕에 의해서도 간부전 및 뇌병증과 같은 중증 합병증을 동반한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증 열사병의 경우 적절한 처치 후에도 높은 사망률을 보일 수 있으므로 본 예와 같이 고령, 당뇨, 남성 등의 열사병의 위험인자를 내포한 군에서는 온탕욕 시행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